



법조인 동정

오석준 신임 대법관 취임식 갖고 업무 돌입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28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오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 간에 상처와 슬픔을 주지 않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저 역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



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대법관으로 6년 동안 마주하게 되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열과 성을 다해 국민이 수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오 대법관은 법원에서 유일하게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낸 언론은 물론 대국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손꼽힌다. 또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오 대법관은 경기도 파주 출신인 오 대법관은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공보관,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오 대법관은 지난 9월 5일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에 이어 대법원 3부에 소속됐다. 이로써 대법원 △1부는 박정화, 김신수, 노태약, 오경미 대법관 △2부는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 △3부는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출처/법률신문)